

추계 학술발표대회 개최
한국생물공학회



한국생물공학회(회장 박돈희) 추계 학술발표대회가 10월 10일(목)부터 12일(토)까지 2박3일간 회원 및 관련인사 1천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장에서 개최되었다. 생물환경기술·바이오에너지·생변환 및 효소공학·나노바이오텍 분야의 분과 심포지엄과 생물산업지원센터·생물산업표준화·바이오벤처창업의 특별심포지엄, 그리고 International Symposium 등에서 약 3백40편의 논문이 발표된 이번 학술대회는 중국생물공학회·일본생물공학회 대표단이 참석하여 한·중·일 생물산업과 학술교류를 더욱 더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별심포지엄으로 진행된 International Symposium은 중국·일본·독일·인도·한국의 5개국이 참가하여 개최되었으며, 생물산업지원센터·생물산업표준화·바이오벤처창업 심포지엄은 생물산업의 활성화와 생물산업기술과 제품 표준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추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대한산업공학회

대한산업공학회(회장 황홍석)는 2002년 10월 12일(토)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추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e-Business와 산업공학'이라는 주제로 전체 23개 세션으로 나누어져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논문 1백2편이 발표되었다. 아울러,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03년 차



서울대 박진우교수(오른쪽)의 학술대상 수상장면

기 회장(오형식 교수: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인준이 있었으며, 이어 가진 시상에는, 학술대상에 서울대학교 박진우교수, 백암논문

상에 계명대학교 이문규교수, 백암기술상에 포항공대 전치혁교수, 정헌학생논문상에 경희대 박찬우, 사이버학술대회 최우수 논문상에 단국대 명영수교수, 우수논문상에 부산대 문일경교수와 부산외국어대학교 한용호교수가 영예의 수상을 안았다.

과학기술 앰배서더 출범식



위촉된 과학기술 앰배서더 대표와 출범식에 참석한 각계 인사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청소년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과학기술계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전·현직 과학기술인 4백30명을 과학기술 앰배서더로 모집, 위촉하고 10월 8일(화) 오후 6시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과학기술 홍보대사의 역할 및 결의를 다지는 출범식을 거행했다. 이번 선정된 과학기술 앰배서더는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중견급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과학기술인으로 과학 분야에 탁월한 공로와 성과를 인정받

은 인사 3백95명과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공계 출신 젊은 과학기술인 35명, 총 4백30명으로 지난 9월 신문공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접수받아 선정하게 되었다. 이번에 위촉된 과학기술 앰배서더는 자신의 모교를 포함, 각급 학교, 기관, 지역회관 등을 순회하며 학생, 학부모, 일반인 등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의 동향과 전망을 소개하고 과학자로서의 삶과 전망에 대해서 강연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자문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은 동아일보, 동아사이언스와 공동으로 과학기술 홍보대사를 모집, 위촉하여 온·오프라인으로 과학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과학기술 기반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해결책과 성공한 과학기술인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한국과학문화재단 02-559-3847, 동아사이언스 02-2020-2327

「올해의 테크노 CEO상」신청(추천)서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강신호)는 기술개발과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혁신과 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연과학 전공 최고경영자를 발굴·포상하여 지식 기반 기술경영을 확산시키고 청소년에게 이공계 진출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의 테크노 CEO상」을 제정하여 금년부터 시행한다. 시상부문은 대기업 부문 1명과 중소기업 부문 1명의 대상이 있으며 포상으로는 각 부문별로 1천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수상자가 희망하면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광주과학기술원 등의 겸임교수에 위촉된다. 신청대상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기업경영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최고경영자로서 이공계 학력과 최고경영자로서의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된다. 신청기간은 2002년 11월 11일까지이다.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심사평가팀 02-2185-8823/4

유망 IT 중소기업 1백곳 선정 지원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장관 이상철)는 중점육성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유망 정보통신 중소기업 1백곳 정도를 뽑아 자금과 기술개발·판로 등을 종합 지원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10월 14일 33개 중점 육성품목을 확정했다. 분야별로는 △차세대 인터넷(공급망관리 시스템·VoIP 등) 6개 품목 △가입자망(초고속광가입자 장치) 1개 품목 △무선통신(무선랜시스템·안테나 등) 3개 품목 △디지털방송(디지털오디오방송 수신기·DVR 등) 3개 품목 △소프트웨어·콘텐츠(게임·애니메이션, 음성정보처리 등) 6개 품목 등 11개 분야다. 이번에 확정된 중점 육성품목은 정통부가 지난 4달 동안 관련 분야 전문가·연구소·협회·기업체 등과 공동 작업을 펼쳐 발굴한 중소기업형 전략 품목이다. 중점 육성품목을 전문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실적과 기술력 등을 종합 평가해 유망 중소 정보통신기업을 선정, 내년부터 자금·기술·판로 등을 지원, 정보통신 분야 핵심기업으로 육성한다. 유망 정보통신기업으로 선정되길 바라는 기업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홈페이지(www.iita.re.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 85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5백90개 유망 중소 정보통신기업을 선정, 2천9백2억원의 정보화촉진기금과 8만2천7백7건의 기술지도·기술정보 등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지난 9월 말 현재 팹택 등 12개 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됐고, 엔씨소프트 등 59개 기업이 코스닥에 등록됐다. 특히 출원은 기업별 평균 4.5건, 업체별 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98억5천만원에 이르러 국내·외서 인정받는 튼튼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문의 : 정보통신정책국 산업기술과 02-750-2362

디지털 지식경영 대상 제정 기업정보화지원센터

기업정보화지원센터(이사장 이용태)에서는 정보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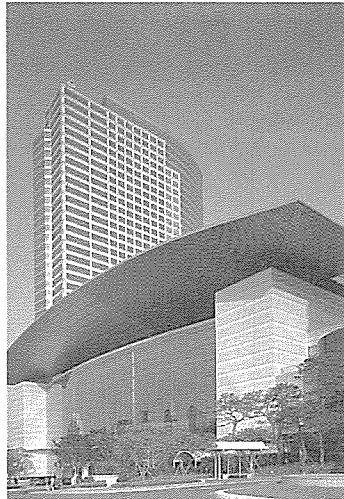
(IT) 기업의 정보화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해 기업들이 정보화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디지털 지식경영 대상을 새로 제정·운영한다. 정보화 우수 기업은 정통부가 추진하는 기업 정보화수준 평가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하며, 정보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은 정보화 공급자로서의 IT기업 만족도를 평가해 뽑는다. 최우수 정보화기업에는 대통령상인 대상이, 기업정보화 확산에 기여한 IT기업에는 국무총리상인 최우수상이 각각 주어진다. 또 제조·건설·SI·금융·유통·솔루션 부문 우수기업에는 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전경련 회장이 주어지고 공로상과 특별상도 마련돼 있다. 정통부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지식경영 대상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 설문지를 활용한 평가와 방문실사 등을 실시해 오는 12월 초까지 최종 수상업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문의 : 기업정보화지원센터 02-730-8582

국립중앙과학관 앞 터 '탐구활동' 공간으로 조성

대덕연구단지 내 국립중앙과학관 주차장 옆 터(1만1천 5백50m²)가 중앙과학관을 찾는 청소년들의 탐구활동 공간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현규)은 10월 20일 "한국토지공사 소유인 주차장 옆 터를 중앙과학관 발전부지로 매입하기로 하고 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한 결과, 내년에 6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과학관은 내년에 이 터를 과학관을 찾는 청소년들의 탐구활동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 관장은 "이 터는 모두 임야로 이뤄져있는 데다 별도의 건물이 세워질 경우 주변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런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 곳을 자연과 어우러진 탐구활동 공간으로 가꾸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부는 지난해 말 에이팩과 고려대가 이 터를 놓고 치열한 입주경쟁을 벌이자 입주기관 선정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빚어지고 인근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면 주변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터를 중앙과학관 시설확장 부지로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세계적인 전시컨벤션센터 COEX 학회·연구소 학술행사에 할인 혜택 제공



국내 최대 규모 자랑

코엑스는 지상 4층, 지하 4층, 연면적 6만8천1백52평 규모의 세계 최고 수준의 전시컨벤션센터로 2000년 5월 새롭게 개관한 이래 아셈 정상회담(2000)과 월드컵 미디어센터(2002) 등 국제 규모의 대형 전시컨벤션

유치 및 개최를 토대로 국내 컨벤션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회에 특별 할인 혜택 제공

세계적인 규모와 품격의 코엑스 컨벤션센터는 국내 컨벤션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국내 주요 학회 및 연구소를 대상으로 인센티브제도를 실행할 계획이다.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인센티브제도는 동일한 학술회의를 동일한 시기에 2년 연속 코엑스에서 개최할 경우 납입금액의 10%를 차기년도에 할인 적용하는 제도이다. 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될 경우 학회나 연구소 측은 결과적으로 차기년도에 전년도 납입 임대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 국내 주요 학회의 학술회의 개최비용 절감을 통한 학술회의 유치 활성화와 효율적인 학술대회 운영이 기대된다. 코엑스는 더욱 활발한 국제학술대회 국내 유치를 위해, 학회나 연구소가 요청할 시 코엑스 시설관련 인쇄물과 영상자료는 물론 국제 컨벤션 기구 및 국제회의 관련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며, 국제기구 본부인사 한국 방문시 시설담당도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 코엑스 예약사무실 02-6000-7890 www.coex.co.kr